

# 라오디게아 -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인가요?

Jeff Pippenger

2023-08-30

"우리는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규칙, 곧 최고의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1888년 자료, 403.

수년 동안 Future for America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사도들의 시대부터 세상 끝까지에 이르는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부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의 고대 이스라엘도 대표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 재림운동의 개척자들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않았지만, 이 진리를 확립하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을 밝히시며,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현대 이스라엘의 예언적 특성에 속한 어떤 진리든 고대 이스라엘에도 존재했다.

밀러파 역사 이전에 일곱 교회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 관점은 그것들이 요한 당시 소아시아의 실제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었다. 전통적 관점은 또한 각 교회에 주어진 권고가 기독교 역사 전반의 여러 교회들에 대한 구체적 권고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동일한 권고와 경고가 개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이해했다. 또한 그들은 일곱 교회가 제자들의 시대부터 세상의 끝까지의 교회사 일곱 시기를 대표한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들은 밀러파 역사에 앞섰다. 윌리엄 밀러 이전에 형성된 전통적 관점을 이루는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네 가지 인식은 성경의 '역사주의적' 해석에 근거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바로 그 방법론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가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의 시대부터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곱 가지 양태 속에서 겪는 모든 우여곡절과 변천, 모든 번영과 역경의 역사이다. 일곱 인은 교회를 둘러싼 땅의 권세들과 왕들의 행적,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역사의 기록이다. 일곱 나팔은 땅, 곧 로마 왕국에 내려진 일곱 가지 특별하고 엄중한 심판의 역사이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교황 로마에 내려진 마지막 일곱 재앙이다. 이들과 함께 지류들이 합류하듯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섞여 한데 엮이며, 예언이라는 거대한 강을 가득 채워, 마침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의 바다로 이끈다.

"이것이 내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의 예언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예언에서 사용된 상징과 은유들은 이 책 안에서 모두 설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찾아야 하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음이 분명하다." 윌리엄 밀러, 『밀러의 강연』, 제2권, 제12강, 178.

화이트 여사는 밀러가 가진 "역사주의적" 견해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지하지만, 밀러가 보았던 것보다 더 깊은 통찰을 요한계시록에 보냈다. 왜냐하면 밀러는 성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소를 지구로 이해했다. 화이트 여사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들을 제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사역과 결부하여 그것을 행하고 계셨음을 깨달았다.

요한이 돌아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촛대들 사이를 거니고 계셨다. 그리고 그 촛대들은 성소에 있으므로, 이는 그분의 승천 이후이되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의 역사에 해당한다. 밀러는 이 현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틴데일, 루터, 존 위클리프나 초기의 개혁자들 누구도 마찬가지다. 진리는 점진적이며, 완전한 날이 이를 때까지 더욱더 밝게 빛난다.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스가 고상하게 옹호했던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진보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비쳐 오는 모든 빛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원칙은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잊혀졌다. 미국의 개신교 교회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축복을 크게 받았으나 개혁의 길에서 계속 전진하지 못했다. 때때로 몇몇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오류를 드러냈지만,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시대의 교황주의자들처럼, 조상들이 믿던 대로 믿고 살던 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므로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타락하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걸었더라면 버려졌을 오류와 미신들이 오히려 보존되고 숭상되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불러일으킨 정신은 점차 사그라들어, 마침내 개신교 교회들에도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에 버금갈 만큼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속성과 영적 혼수상태도 같았고, 사람의 의견을 비슷한 정도로 숭상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인간의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진리가 역사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어떤 새로운 빛의 의미도 사실상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사람이 "진리"의 점진적 성격을 이해하기를 멈추는 순간, 자동적으로 전통과 관습,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인도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밀러가 사용한 방법론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성경적 진리의 발전을 증언하는 전체 예언의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정표이다. 그러나 밀러가 대표하는 이 이정표에서 우리는 끝에서 상응하는 대응점을 요구하는 시작을 발견한다. 대부분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탄만은 그렇지 않다.

사탄은 하늘에서 반역한 때부터 진리와 그것의 발전에 맞서 저항해 왔다.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르자, 사탄은 늘 하던 대로 가짜들을 내세웠다. 진리를 위조하려는 그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리베라와 루이스 데 알카사르 같은 예수회 인물들이 그들의 가짜 방법론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겨냥해 집중시켰음을 보여준다. '프리터리즘'이라고 불리는 그 타락한 방법론은 2세기와 3세기에 그 거짓 방법론의 두 주요 대표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260~339)였고, 다른 한 사람은 페타우의 빅토리누스(약 304년 사망)였다. 이 두 초기 역사적 인물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에 의해 로마 제국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었다고

제시하는 그 방법론을 옹호했다.

19세기에 영국 출신 존 다비(1800-1882)는 또 다른 사탄적 방법론을 도입했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지적한 트로이 목마 성경, 즉 Scofield Reference Bible의 각주에도 삽입되었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의 상호작용을 서로 구별되는 시기, 곧 '세대'로 나누어 하나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집행하신다고 보는 신학적 틀이다.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다비가 그의 사탄적 사상을 전파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온 목소리들에 의해 Future for America 운동에 도입된 거짓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Future for America를 공격한 다비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는 동일한 무정부 상태와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동일한 방종을 조장하는 이른바 현대의 "woke" 운동의 철학을 동반하고 있었다.

오늘날 재림교의 신학자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약화시키고 부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성경 해석의 이중 체계를 바탕으로 성경의 진리를 해부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성경 언어의 전문가이거나 성경 역사 전문가로 구분한다. 이처럼 오늘날 재림교의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역사 이해나 언어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재림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기별을 공격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 온 이러한 현대적 오류의 양상들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성을 살펴볼 때 이 글들에서 더 다루게 될 것이다. 사탄은 살아 있으며, 자기의 때가 짧음을 안다. 밀러의 규칙들 가운데 마지막 규칙인 열네 번째는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끝맺는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늘 어떤 종파적 신조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백지 같은 마음을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각인시키는 데는 소용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언제나 편협으로 끝날 것이다. 자유로운 마음은 결코 타인의 견해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먼저 그들의 역량과 마음가짐을 알아볼 것이다. 그 역량과 마음가짐이 좋다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 선을 행하도록 자유롭게 내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 생각이 없다면, 남의 생각을 각인시키고, 이마에 '편협자'라고 써 놓고, 노예로 내보낼 것이다!" 윌리엄 밀러, 밀러의 저작집, 제1권, 24쪽.

게시자 요한이 살던 시대 직후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탄이 참된 성경적 분석을 혼란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거짓 예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서 때로 간과되는 것은, 그 모든 사탄적 방법론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한 권만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이 사탄적 혼란을 조장하는 자들 각자의 주제였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사탄의 표적이었다. 사탄은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면, 또 다른 중요한 진리에 의해 가려져 있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현실도 인식할 수 있다.

예수회의 거짓된 방법론은 로마 교회의 교황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인식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 리베라와 루이스 데 알카사르와 같은 인물들의 정확한 역사가 말과 출판물 통해 공개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그 역사는 '죄의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적 노력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탄적 방법론의 도입 목적을 폭로하는 문서 또는 구두의 증언들은

그것이 다루는 범위에서는 옳지만, 사탄은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식별하는 성경적 증거만을 단순히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계시록에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 수가 육백육십육인 사람에 관한 주제에서 벗어난 거짓된 성경 해석 체계들이 빚어낸 혼란으로 인해 그것들이 가려져 왔다.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일곱 교회를 그들의 가장 완전한 전개 속에서 이해할 때 드러나는 진리임이 분명하다. 일곱 교회 안에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일요일 법령 위기로 끝나는 역사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진리들이 있다. 사탄은 이 빛을 묻어두려 애써 왔고, 계시록에 있는 여러 진리의 보석들을 흐리게 하려고 사탄적인 방법론들을 고안해 냈는데, 그것은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식별하는 것만이 아니다.

538년에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유세비우스와 빅토리누스와 같은 이들은 교황권의 부상을 흐리려는 시도로 요한계시록을 공격했다. 그 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아라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종교개혁의 새벽별(위클리프)을 일으키셨고, 이어 사탄은 자신의 사탄적 일을 옹호하고 이어 가도록 두 명의 저명한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켰다. 진리의 전개를 둘러싼 장기간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릴 때(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 절정에 이르는데, 그 전쟁에는 밀러도, 화이트 자매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일곱 교회의 빛이 포함된다. 그러나 새 빛은 결코 옛 빛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밀러와 '예언의 신' 모두가 그 새 빛을 옹호한다는 것을 쉽게 보여 줄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흔들릴 수 없는 입장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빛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서 안 되며, '정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 왔고 그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옛 진리 외에 더 많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 머무는 동안, 참된 증인의 증언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책망한다. '네가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요하고 소유가 늘어났으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상태에 대해서는 눈먼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알지 못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4년 8월 7일.

새로운 빛에 대한 주된 기준은 그것이 확립된 진리와 모순되는지, 그리고 근본 진리들을 지지하는지 여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진리인지 증언할 때, 그 진리는 영원히 진리로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하는 그 어떤 이후의 가정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진리라 여기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주셨다. 그분께서 친히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모순되는 새로운 빛을 내세우며 어떤 이가 일어나고 또 다른 이도 일어날 것이다. 선택된 기별, 제1권, 162쪽.

사탄은 요한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기록한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공격 목표로 삼아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13:16, 17.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수반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복이다. 요한이 '마지막 때'에 그 메시지를 보고 듣는 자들을 대표했을 때, 그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고, 가브리엘은 즉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일러 주었다.

나 요한은 이 일들을 보고 들었다. 내가 듣고 본 뒤, 이 일들을 내게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네 형제들 곧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22:8, 9.

가브리엘과 요한은 모두 피조물이며, 오직 창조주만을 예배해야 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세상 끝에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가 다시 반복될 때 그 메시지를 "보고" "듣기를" 갈망해 왔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였던 것들을 본 눈은 복이 있다.

"메시지는 주어졌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메시지를 반복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 사역은 이루어져야 한다. 큰 사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큰 외침으로 커지게 될 한 메시지가 주어질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21권, 437쪽.

의로운 사람들(요한)과 그들의 동료 종들인 천사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재림운동의 마지막에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히 비추어질 때 이루어질 한밤중의 외침의 최종 성취였다. 늦은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최후의 권능의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미리 말하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묻고 애써 살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뒤이어 올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것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뜻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밝혀졌으니, 곧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일들이 곧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에 의해 이제 너희에게 전해졌고, 이러한 것들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베드로전서 1:10-13.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천사들은 한밤중의 외침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는 시대에 살기를 갈망해 왔다. 그 “은혜”, 곧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이 풀릴 때 사람들에게 임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린 메시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빛을 혼란시키고 억압하고 은폐하려는 데 자신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빛은 단지 “불법의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진리는 이미 수세기 전 모든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충분히 기록되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더라. 나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더니 일곱 금촛대를 보았고,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되, 발에까지 드리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눈처럼 희었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군 빛난 놋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 선 예리한 칼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그 힘으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으니 아멘.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10-19.

재림교회는 ‘역사주의’ 방법론을 고수하는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모든 교회가 마지막 교회 안에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불행히도 19세기 말에 이르러 사탄은 이미, 자신들이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의 보관자들’로서 져야 할 책임의 본질적 일부인 그 거룩한 방법론 자체와, 그것을 보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 재림교회의 눈을 감기고 있었다. 재림교회 안에서 그 방법론이 제쳐지고 있던 때에도, 여전히 그 거룩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밧모의 선견자 이야기’라는 책을, 모든 교회들을 라오디게아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이 예언의 정당한 적용임을 증언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다음은 내가 말하고 있는 요점을 보여 주는, 그 책에서의 발췌문들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마지막 교회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의 경험이 반복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의 역사도 마지막 세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스티븐 N. 해스켈, 밧모의 선견자의 이야기, 69.

Haskell은 첫 네 교회의 경험이 반복된다고, 혹은 그의 말대로라면 "마지막 세대에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확히 지적한다.

"그는 그 시험을 적용했지만, 모든 것은 세상이 자기의 구주를 맞이해야 할 때는 1843년이라고 가리켰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이제 되풀이되었다." 스티븐 N. 해스켈, 밧모의 선견자 이야기, 75.

해스켈은 윌리엄 밀러가 1843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해로 지목한 일을 언급하며, 초림 때의 상황이 밀러파 시대에 반복되었다고 지적한다. 해스켈은 옳았고, 화이트 자매는 밀러 자신이 세레 요한으로 표상되었음을 확인한다.

"세레 요한이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했듯이, 윌리엄 밀러와 그와 함께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선포하였다." 초기 저술, 229쪽.

해스켈은 심지어 버가모의 역사(기독교가 우상숭배와 타협함을 상징하는 세 번째 교회) 동안 다섯 번째 교회인 사데의 역사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한다.

버가모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교가 죽었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겉으로는 정복당한 듯 보이던 그 종교가 오히려 승리했다. 세레를 받은 이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사데의 시대에도 이 역사는 반복되었다. 스티븐 N. 해스켈, 밧모의 선견자의 이야기, 75, 76쪽.

사르디스는 종교개혁의 교회로서 깨어 일어나 교황권의 사탄적인 오류에 항거했으나, 그들의 일이 마치기도 전에 벌써 로마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황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해스켈은 또한 남은 교회 위에 "과거 모든 시대의 누적된 빛"이 비친다고 지적한다.

"모든 과거 시대의 축적된 빛이 이 마지막 교회—곧 남은 무리—위에 비친다." 스티븐 N. 해스켈, 밧모의 선견자 이야기, 69.

나는 해스켈이 일곱 교회가 나타내는 진행적 역사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나간 시대의 축적된 광선들"이 "마지막 교회" 위에 "비춘다"고 쓸 때, 그 진리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도 "과거 시대들의" "광선"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곱 교회의 상징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을 지지하지만, 그 상징들이 나타내는 유사성(대응관계)을 그가 얼마나 깊이 인식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또한 나는 일곱 교회가 대표하는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곧 제시하려는 더욱 중요한 측면을 그가 인식하지 못했음도 확신한다.

이 진실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